

##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경제학의 연결고리\*

원용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

Received 12 April 2019; Revised 16 August 2019; Accepted 28 November 2019

### 요 약

이 글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견고한 핵으로 자리 잡아왔던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목적론을, 데카르트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형이상학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의 지식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검토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신과 자연, 인간의 본성, 인간의 능동성, 감정, 자유, 이성, 행복 등의 주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고 실천전략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스피노자에 근거하는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이미 다윈과 진화경제학, 비선형의 복잡계 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호모에코노미쿠스도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경험철학의 공리주의가 결합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신체의 욕망, 계산하고 측정하는 도구적 이성이 아닌 참된 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은 신경경제와 행동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경제학의 지식체계에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역량과 기쁨, 공동체 사회는 비주류경제학의 역량접근과 동일 지점에 서있으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오늘과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세계에 대응하여 경제학도 새로운 분석, 이론체계, 예측의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유연한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 철학과 새로운 경제학의 견고한 핵에 대한 가능성은 대항적 비주류경제학이 미래 지향적 패러다임을 공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스피노자, 데카르트, 경제학 방법론, 진화, 감정, 코나투스, 기쁨, 슬픔, 호모에코노미쿠스.

**JEL Code** : B4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 아태경상저널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함.

\*\* 교신저자 : 원용찬, w322@jbnu.ac.kr

# The connection between Spinoza's *Ethica* and Economics\*

Yongchan Won\*\*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12 April 2019; Revised 16 August 2019; Accepted 28 November 2019

## ABSTRACT

This article criticizes Descartes and Newton's mechanistic teleology,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 hard core of neoclassical economics, with Spinoza's *Ethica* and metaphysics, which pointed out Cartesian errors fundamentally. Review if you should go out. Spinoza's *Ethica* deals with the Substance of God and nature, nature of human, emotion, freedom, reason, happiness, and includes a wide range of contents including practical strategies. Spinoza-based economics paradigms are already emerging in Darwin, evolutionary economics, and nonlinear complex economies. Homo economus is nothing more than a combined error of Descartes' rationalism and empirical philosophy. Spinoza's mind and body parallelism, the desires of the body that were regarded as irrational, and the new conception of common reason rather than instrumental reasoning that calculate and measure provid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the new economic system of knowledge beyond the paradigm of neur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Spinoza's conatus, capability and joy, and community society open the door to better possibilities while standing at the same level as the capability approach of non-mainstream economic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world, economics must also have flexible resilience to ensure the accuracy of new analyzes, theoretical systems, and predictions. In this sense, the possibility of a hard core of Spinoza philosophy and new economics c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firm to build a future-oriented paradigm.

**Keyword** : Spinoza, Descartes, economic methodology, evolution, emotion, conatus, joy, sorrow, Homo economus.

**JEL Code** : B4

---

\* This paper comply with the ethical codes set by NRF and AJBC.

\*\* corresponding author : Yongchan Won, w322@jbnu.ac.kr

## 1. 들어가는 말

과학철학과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검토할 때 라카토스(L.Lakatos)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 : SRP)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구성하는 견고한 핵(hard core)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경제학의 방법론적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A.Smith) 이후 신고전학파의 전통은 하나의 패러다임 또는 연구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왔다거나, 경제학사에서 케인즈(J.M. Keynes) 경제학이 기존의 연구프로그램을 벗어나 새로운 SRP가 등장하여 기존의 견고한 핵을 부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다(Redman, 1993 : 146). SRP에서 견고한 핵은 비통약적이며 수정할 수 없는 일종의 공리वाद과 같으며 진보하거나 퇴화하고 반증과 변증을 거듭하는 보호벨트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불변의 견고한 핵은 최적화, 균형, 경제인(호모 에코노미쿠스), 개인주의, 합리성,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방법론의 암묵적 특징이나 믿음 체계에 불과하고 무슨 형태로든 “경제학에서 견고한 핵을 명시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Redman, 1993 : 146).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견고한 핵을 좀 더 밀고 들어가면 어느 지점까지 도달할까? 경제학이 순수하고 엄밀한 독립과학이라는 주장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신고전학파의 뿌리는 데카르트(R. Descartes)와 뉴턴(I.Newton) 역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의 이성과 뉴턴의 기계론적 사고는 당시 원자론적 개인주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사회의 질서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경제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박우희, 2007 : 9).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핵심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은 세계의 궁극적인 근거로서 또는 참다운 진리를 인식하는 부동의 실체로서 신의 문제이다. 데카르트는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운행 법칙을 부여하는 초월적 존재를 전제로 한다. 뉴턴 역시 신을 거대한 시계제작자(The Great clock maker)로 인식하고 세계는 신의 섭리와 규칙적인 법칙에 따라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는 이신론(理神論, Deism)의 입장에 서있다.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은 신을 인간 외부의 완전한 초월적 존재로 파악하는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견고한 핵은 데카르트와 뉴턴의 초월적 신학과 기계론을 형이상학적 전제로 삼아 지식을 창출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데카르트와 뉴턴의 형이상학과 이신론에 새로운 비판과 오류가 지적된다면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견고한 핵은 물론 지식과 이론체계도 당연히 수정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철학적 논쟁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는 신과 인간

의 지형구조에서 데카르트와 근본적인 대척점을 이룬다. 근본적으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초월적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원론적 범신론에 서있다. 실체(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르다. 아울러 데카르트의 이성의 우위,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기계론,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이성(정신)과 감정(육체)의 심신병행론, 유기체론, 내적 역량과 능동성,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이 글은 데카르트의 오류는 곧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오류라는 입장에 서있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드물기는 하지만 경제이론과 접합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자폐적(autistic)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극복하기 위한 스피노자의 중요성(Buzaglo, 2006), 신의 자유와 역량접근의 한계점과 극복 방향을 지적인 연구(Zuolo, 2004)는 물론, 스피노자의 기쁨과 슬픔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Faria, 2011), 스피노자의 인간 행동을 개인과 사회적 존재로 조망하여 미시경제학과 연결시키거나(Keyzer, 2000), 스피노자의 행복과 윤리를 경제학과 결부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한 연구(Hirata, 2011)가 있지만 총체적 차원에서 스피노자 철학을 경제학 전체의 방법론과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 철학자 헤겔(G.W.F Hegel)은 스피노자를 근대 철학의 결정적인 지점으로 보고 철학을 하려면 반드시 스피노자를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은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가 근대철학의 내재적 과제인 신과 인간의 필연적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프랑스 철학자의 들뢰즈(G. Deleuze),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알튀세르(L. Althusser),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네그리(A. Negri)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면서 현대철학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정치학과 민주주의, 공동체의 협력사회와 경제, 감정과 정동의 자본주의, 미디어와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미학적 뿌리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스피노자의 주저로서 윤리학을 뜻하는 「에티카」(Ethica, 1677)는 총5부로 나뉘져 있으며 그의 다른 저서 「신학정치론」이나 「정치론」과 달리 철학적 논증을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에티카」는 신과 자연, 인간의 본성, 능동성, 감정, 자유, 이성, 행복 등의 주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고 실천전략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제약된 지면에서 스피노자 철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경제학의 방법론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다만 스피노자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실체(신)와 진화, 이성 중심의 데카르트 경제학과 스피노자의 심신병행론, 코나투스과 역량, 이성과 자유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시론의 차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스피노자의 내재적 원인과 반목적론, 경제학의 진화와 비선형

### 2.1 스피노자의 실체(신) 개념과 자기 원인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실체 규정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결정적으로 가른다. 먼저 스피노자는 신의 개념 설정을 실체(substance), 속성(attribute), 양태(mode)에 관한 정의와 연결 짓는다.

- ① 실체(신)는 자기원인(self cause)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존재성을 띤다.
- ②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성(intellect)이 지각한다.
- ③ 양태는 실체의 변용(affectations), 또는 그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 안에 존재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파악된다(E, 제1부 정의 3-5)<sup>1)</sup>.

스피노자의 신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자기가 원인’이 되어 자신의 본성을 무한하게 창출하는 필연적 실체로 규정된다. 신의 본성은 자연만물을 무한하게 생산하는 원인으로 신 즉 자연(Deus, sive Natura= God, or Nature)이다. 실체는 무한히 다양한 속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만물(=자연)로서 신의 변용(affectations) 또는 변양(modification)으로서 양태라고 부른다.

실체(신)과 양태는 본성상 서로 다르다. 신은 능동적 존재로서 영원하고 불변이지만(생산하는 자연 *natura naturans*), 자기원인에 의해 창출되지 못한 양태는 유한하며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능동성을 띠지만 부분적으로 수동적 관계(생산되어진 자연, *natura naturata*)를 띤다. 양태의 변용은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을 비롯하여 하늘, 산, 나무, 돌, 금속과 같은 자연만물은 신의 무한한 속성이 변용된 것이다. 신적 능력이 자신의 모습을 바꿔 모든 만물에 표현되어 있다. 존재하는 것에는 신의 완전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는 양태들은 양태들 간의 무한한 외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바위가 예술가를 만나면 조각품이 된다. 파쇄 되면 자갈이 되거나 바람에 찢긴 먼지는 흙으로 변용되어 양태의 모습을 달리한다. 셋째로 변용은 사물에만 작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도 실체의 변용으로서 양태에 속한다. 어떤 계기가 되어 내 몸의 상태가 슬픔 또는 기쁨의 감정(affect)<sup>2)</sup>이 때 순간마다 바뀌는 변이 상태도 변용(affectation)으로서의 양태이다.

1)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제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마다 기하학적 논증에 따라 서문, 정리, 증명, 정의, 공리, 보충, 보조정리, 공준, 주석, 부록으로 끊임없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학 논문에서 「에티카」 출처 표기는 특정 텍스트의 페이지가 아니라 (E, 제1부 정의 3-5)와 같은 식으로 표시한다.

스피노자에게서 속성은 실체와 양태를 연결하는 개념이다. 양태는 실체가 속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신은 무한한 속성이 있으나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thought)와 연장(extension) 뿐이다. 스피노자는 무한히 많은 속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유와 연장의 속성만 가지고 전체와 부분(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박삼열, 2012 : 30).

데카르트와 비교하여 스피노자의 실체(신) 개념은 신과 자연만물의 관계에서 신은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immanent) 원인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자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E, 정리 18).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써 파악하는 일원적 범신론 또는 만유내재신론(monistic pantheism)에 입각한다. 신은 자연과 동떨어진 외부의 초월적 존재로서 숭배하거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신에게 초월 또는 신비적 인격체를 부여하는 목적인(final causes)이라는 환상(들뢰즈, 2015 : 35)에 불과하다. 검은 하늘에서 시퍼런 번개가 내려치는 현상을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는 신의 계시로 상상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하여 인간사회를 지배하려는 종교적 행태도 역시 미신과 편견일 뿐이다. 번개는 신의 변덕도 아니며 단지 하나의 과학적 현상이다. 진화와 제도경제학의 창시자인 베블런(T. Veblen)도 미신과 애니미즘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과학과 사실적 내용에 입각하기 위해서는 신과 사물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의인관적 사고습관(anthropomorphic habits of thought)을 벗어버릴 것(Veblen, 1932 : 310)을 강조한다.

신은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 신이 목적을 가지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로서 결여를 내포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신(실체)는 어떤 사건의 흐름이나 사물의 본성에 자신의 목적을 부여하여 의도적으로 이끌거나 형상을 부여하지 하지 않고 오직 작용할 뿐이다. “신은 자기 자신에 의한 원인이자 작용인(efficient cause)이며(E, 제1부 보충 1-2), 자연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으며, 모든 목적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는데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E, 제1부 부록)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데카르트는 최초의 운동은 외부의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 신과의 협력으로 시작된다. 스피노자에게서 물체는 실체에 내재된 내적 역동성과 원리를 자체에 지니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실체(신)의 무한한 능력의 내재적 원인을 통해 수학·물리적인 자연법칙의 필연성에 따라 무수한 개별적 인과관계의 연결망으로 이뤄져 있다.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곧 신이었다.

2) 스피노자의 용어 affect(affectus)와 affection(affectio)는 지금도 번역용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affect는 정동, 정서, 감정으로, affection은 변용, 정서로 옮겨지고 있으나 아직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affect를 정동 또는 정서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에티카」의 국역본에 따라 ‘감정’으로 일단 통일한다.

## 2.2 스피노자의 내재성과 반목적론 : 진화와 비선형의 경제학 패러다임

데카르트의 신이 외부성, 초월성, 목적성 또는 목적결정론이라면 스피노자는 내부성, 내재성, 반목적론의 진화적 체계를 갖는다.

신고전학과와 마르크스의 경제학도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목적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먼저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개인의 합리성, 경제주체의 최적화, 균형 원리를 내재하면서 시장경제의 최종적 안정상태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목적론(teleology)을 내재한다. 신고전학과의 핵심적 방법론은 효용과 이윤의 극대화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최적화 원리를 추구한다.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에서 목적함수를 극대화(비용의 경우에는 극소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도출해낸다. 최적화 원리에 기반한 모든 행위는 경제인과 시장에서 이뤄진다. 신고전학과는 이기심이나 합리성을 인간본성(human nature)으로 삼는다. 경제인의 본성이 허용되는 시장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로 간주한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과 이익을 얻는 인간의 합리성은 데카르트의 개념대로 신과 협력하여 얻어낸, 일종의 생각하는 주체(cogito) 또는 이성(reason)이며 신고전학과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성경의 천지창조와 비슷하며 시장 기구와 함께 신앙에 가깝다”(홍 훈, 2007 : 96). 모든 재화와 생산요소의 소비와 분배가 이뤄지고 경제인의 합리성이 작동하는 수요와 공급메커니즘의 자동적 시장은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신의 섭리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자연스러운 경로에 따라 균형이라는 최종지점(telos)에 이른다. 신고전학과에서 시장은 최고의 선이 작용하는 자연, 즉 원래부터 존재하는 피지스(physis)로 간주되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우주의 모습으로까지 등장한다.

### 2.2.1 신고전학과와 마르크스 경제학에 내재된 최종 목적론

마르크스 경제학도 신고전학과의 최종 균형처럼 데카르트와 신학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정론적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단계에서 공산주의를 최종지점으로 설정한다. 공산주의는 소외와 착취도 없으며 더는 갈등도 벌어지지 않고 마침내 모순과 운동이 멈추는 최종 종착역으로서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신고전학과의 정태적 분석을 뛰어넘어 변증법의 동태적 모습을 보였던 마르크스 경제학도 공산주의 사회로 진보한다는 특정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진화 경제적 사고는 경쟁, 생존, 적응, 변화와 변이, 다양성을 핵심원리로 삼아 개체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상호과정을 거치는 자기 전개 과정을 특징으로 삼는다. 진화경제는 신고전학과와 마르크스 경제학의 목적 결정론과 달리 반목적

의 비결정론에서 결정적 차이점을 보인다. 진화경제학의 시발점이 된 베블런은 모든 변화의 흐름은 궁극적 목적이나 해결책도 없는 불확정한 원리에 입각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누적적 인과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eblen, 1898 : 70-1). 다윈주의를 잇는 베블런의 진화 경제학은 생물계의 진화에서 목적은 없다고 선언한다. 진화론은 무목적성, 우연성, 맹목적성을 양보할 수 없는 토대로 삼고 있다. 진화 경제학은 사물의 운동변화에 부여되는 애니미즘적인 정령숭배를 부정하고 오직 사실적 내용(a matter of fact)에 기초하는 탈인격화(impersonal)의 과정을 중시한다. 모든 변화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역사는 끊임없이 최종의 목적으로 향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 또는 변이의 발생에 의해 예측 불허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미래 변화의 방향은 불확실하며 맹목적 미완의 흐름(blind draft)이라는 성향을 지닌다(원용찬, 2007: 22-23).

### 2.2.2. 베블런과 다윈주의, 스피노자의 반목적론과 진화

베블런과 다윈주의가 연결되어 있다면 진화의 차원에서 스피노자와 다윈의 관계도 어떤 형태든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카우키(L. Kaucky)는 스피노자와 다윈에 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관찰 가능한 자연법칙이 존재하며 여기서 세상의 인간과 사물 들은 고정되고 정태적인 의도를 갖지 않으며 최종 목적 또는 목적인(telos)도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가 다윈의 선구자는 아니더라도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이 제1원인으로서의 신이 목적을 부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목적론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도 같다(2016:12).

베블런의 진화경제에서 최대 특징은 생물학적 개념인 본능(instinct)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본능은 인간이 어떤 의도를 실행하기 이전의 의지, 충동, 욕망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식물의 줄기가 생리적으로 햇빛을 따라가는 향일성 역시 굴성(tropism)의 본능적 행위에 속한다. 외부조건에 단순히 반응하는 식물의 굴성적 행위와 달리 인간의 본능에는 어떤 목적(purpose)에 맞춰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동성이 꿈틀댄다. 인간은 자신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위하고 또 어떤 목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를 목적론적 내용(a thing of teleological content)으로 구성한다. 기술자가 하나의 제품을 이전보다 더 낮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시장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작본능(the instinct of workmanship)도 여기에 속한다.

베블런은 인간 내부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습성, 관습, 본능의 다발과 같은 다중 본능론을 제시한다. 베블런은 신고전학파의 이기심이나 공상적 사회주의들의 이타심처럼 하나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인성론을 부정하다. 다양한 본능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휘된다. 결과는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한성안, 2010 : 26). 후술하듯이 스피노자가 코나투스(conatus, 자기보존 본능)의 개념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은 의지, 욕망,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베블런의 다중 본능론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서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진화적 세계에서 고전물리학의 균형상태(신고전학과)와 파라다이스(기독교)를 향한 역사발전의 법칙(마르크스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과정은 고전물리학의 논리적 시간보다 생물학적인 역사의 시간을 거친다. 진화의 세계는 선형적이고 가역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수체증, 피드백, 누적적 인과관계에 따라 변하는 비가역적인 세계와 동일하다(한성안, 2010 : 21-23). “스피노자의 내재적 인과관계는 물리와 화학법칙의 필연적 결과로서 생산된, 역동적 체계 또는 복잡계의 과정과 자기 조직화를 통해 자신을 양태로서 펼쳐가는(unfolding) 진화의 관점에 서있다”(Atlan, 1998 :215).

진화경제학에서는 최종목적이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게서 신은 자연을 창조하고 유한한 목적을 두지 않는다. 신 또는 자연이다. 자연은 곧 신이다.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실체(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자연을 일의적으로 파악하여 무신론에 가깝다는 평가도 받는다. 스피노자의 세계에는 실체(신) - 속성 - 양태의 변용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매순간마다 복잡한 인과관계의 연쇄 고리로 창출된 자기조직화와 복잡계의 과정을 통해 우주 전체의 모습이 무한하게 펼쳐진다. 자연은 한계와 목적이 없으며 신으로 다시 수렴되지도 않는다. 번개라는 현상이 인격화된 신의 징벌로 귀속되지 않는 것도 단적인 사례이다. 신은 곧 자연이면서 실체(신)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가역과 비선형의 세계가 존재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데카르트와 뉴턴의 고전물리학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학이 지향해야 할 견고한 핵의 가능성을 지닌다.

### 3. 데카르트와 호모에코노미쿠스, 스피노자 심신평행론의 새로운 지평

#### 3.1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경제학에서 도구적 이성과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뿌리

데카르트 철학은 ‘생각하는 나의 존재’(cogito)를 궁극적 토대로 삼아 근대 이성 중심의 보편적 학문 체계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데카르트는 권위, 감각경험, 수학적 추론에서 나오는 지식을 의심하는 극단적인 방법론의 회의를 거듭한다. 여기서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실존적 결론에 도달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제1명제를 이끌어낸다.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참된 진리의 원천, 신의 확증, 이성의 근원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데카르트의 신은 인간의 이성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신적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의 ‘정신(mind)’은 불완전한 감각의 ‘신체(body)’와는 별도로 독립적 실체여야 했다. 데카르트에게서 사유의 속성에 해당하는 실체(정신)와 연장의 속성에 해당하는 신체는 분리되어 있다.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 또는 실체이원론에서 주체(정신)은 객체(신체)의 원인이 되어 인과 관계적으로 지배한다. 신체는 정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기계였다. 데카르트는 정신=신적 이성을 중심으로 삼고 그 이외 인간 신체와 더불어 동물, 모든 자연만물은 창조주 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기계론적 세계를 펼쳤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과 이성 중심적 사고, 기계론의 자연과학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분석방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이나 폐해를 끼쳤다. 먼저 화이트헤드(A. Whitehead)가 지적한 것처럼 데카르트적 이성은 “정신은 자신 안에서 그 자체로 생산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만 알 수 있다는 암묵적 가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2007:32)는 자폐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데카르트의 이성은 수학적 인식을 최고의 이상으로 설정한다. 정신 외부에서 주어지는 관념적 형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정신이 산출하는 형상들에 대한 인식을 최고로 삼는다. 정신은 대상에 의한 감각기관의 자극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 만을 필요로 한다.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결과를 계산하는 것, 즉 추론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아렌트, 1996: 350).

데카르트는 주류 경제학이 “기계적이고 수학적이며 결정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세들라체크, 2012 : 240). 불확실한 감각과 경험을 배제한 데카르트의 이성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경험적 실재와 동떨어진 추상성, 수학과 논증, 기호로 구성된 경제 모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 경제학이 표상하는 합리적 세계는 언제나 수학과 기호로 환원된다. 수리와 기호로 이뤄진 기계적 모델의 세계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감정, 우연, 느낌이 가져다주는 공통감각을 결여하고 인간 상호간의 접촉과 공감, 윤리와 도덕을 폐기하였다.

데카르트는 중세의 신화적 전통과 미신을 극복하고 주관적인 비체계성을 타파하기 위해 이성의 합리성을 불변의 토대로 삼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 신적 이성은 단순한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였다. 경제학의 이성은 공리주의와 결합하여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추론하는 계산능력으로 변질되었다. “쾌락주의적 인간의 개념은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재빠른 계산기가 되었으며, 인간은 불활성(inert)이며 수동적인 존재로서 주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고립된 데이터 자료로서만 존재할 뿐이었다”(Veblen, 1898 : 73).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사유와 논리를 강조하고 물질과 감각을 추방하여 신체를 비롯한 모든 사물을 순수한 역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구조물로 파악하여 마침내 경제학에서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 지성은 수학과 계산능력으로 축소되고

“지성의 협소와 더불어 인간 개념도 협소화되는데 이것의 뿌리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협소화 된 인간 개념으로서 호모 에코노미스였다(Mini, 1974 : 24).”

데카르트의 합리적 이성은 경제학에서 공리주의와 결합하여 인간을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로 모델화시키는 과정에서 계산하고 측정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축소되었다. 시장기구 역시 경제주체가 합리적 계산, 효용과 이득의 극대화를 통해 최적화를 도모하게 되면 최종 균형과 안정을 이루게 된다는 인위적 우주 또는 신의 섭리가 작동하는 자연(physis)이 되었다.

주류 경제학의 합리적 세계는 데카르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사유(정신)과 연장(신체)를 두 개의 실체로 분리하여 인과관계로 규정하는 데카르트의 이원실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실체론과 달리 정신과 신체를 동일한 실체(신)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실체론 또는 심신 평행론에서 데카르트 경제학의 관점을 벗어나는 단서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3.2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 신체 없는 이성의 비판과 신경경제/행동경제학의 지향

스피노자는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신체라는 자동기계를 거부하고 정신과 신체를 신의 속성에서 변용된 각기 다른 양태로 파악한다. 실체(신)은 시시각각으로 매 순간마다 동일한 속성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무한한 양태로 표현하는 작용인이다. 무한한 속성 중에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다. 실체(신)은 사유와 연장의 속성을 통해 각각 정신과 신체로 변용한 양태로서 자신을 표현한다. 신의 무한한 속성들은 서로 동등하다는 점에서 사유와 연장의 속성이 각기 변용된 정신과 신체는 서로 동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외부 대상은 연장의 속성을 통한 신체에, 관념은 사유의 속성을 통해 정신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표현될 뿐이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뜨겁다(대상의 형상). 신체의 뜨거움은 사유의 속성에서 다르게 변용되어 뜨거움이라는 관념의 양태(형상의 표상)로만 남는다. 관념에서 존재하는 뜨거움은 결코 뜨겁지 않다. 동일한 존재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일 뿐이다. 데카르트처럼 대상과 관념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뜨거움의 지각이 관념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후관계나 반영론적 인식론도 거부된다. 스피노자의 정신과 신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는 정신을 생각하도록 할 수 없으며, 정신은 신체를 움직이고 멈추게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것이 있다면) 결정하도록 할 수 없다”(E, 제3부 정리 2). 신체는 신체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동등하게 독자적인 질서와 인과의 연결을 갖는다는 것이 심신평행론이다.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다”(E, 2부 정리 7). 컴퓨터 화면은 밖에서 보이는 화상 이미지(신체)와 이진법에 의한 무수한 디지털 조합(정신)으로 이뤄져 있듯이 신체와 정신은 동전의 양면

을 이루고 있다.

스피노자는 영혼 불멸의 정신이 불안정하고 경멸스러운 신체의 감정을 지배하거나 추방하는 데카르트의 이성 합리론을 거부한다. 신체 없이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은 신체라는 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신체의 변용을 거치지 않은 이성적 사유와 의식만으로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데카르트의 결정적 오류였다.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 정신은 신체가 존재하는 대로 느끼고 신체가 경험하는 것들만을 지각할 수밖에 없다(이수영, 2017:181). 한 걸음 나아가 스피노자는 신체 없는 정신의 데카르트적 오류를 넘어 “인간의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E, 제3부 정리 2 주석)는 명제 속에서 신체의 충동을 눈여겨보고 인간의 본성은 욕망에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오히려 “스피노자의 신은 우리의 감각이 지각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고 무한한 실체이다”(다마지오, 2016 :320). 스피노자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이루는 지점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제3부의 감정의 기원과 본성을 통해 신체에서 벌어지는 느낌, 정서, 감정을 섬세하고 다양한 기하학의 메카니즘으로 다룬다.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구조는 이성과 정신의 자유 의지에만 존재한다는 결정론은 착각이며 환상이었다. 신체의 충동, 정서, 감정이라는 무의식과 의식의 연결망이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다. 물론 후술 하듯이 인간 존재에 통합되어 있는 이성(정신)과 감정(신체)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복합체가 되어 자기 역량을 증진시키고 더 나은 인간의 완전성으로 나가게 만든다.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은 현대 뇌 과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을 만큼 혁명적 진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뇌 과학의 성과를 도입하는 신경경제학은 데카르트 심신 이원론의 결정론이 야기하는 외부지식의 불확정성을 넘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Glimcher, 2003 :xix).

생리학자 리벳(B.Libet)은 인간이 자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느끼기 300밀리 세컨드(0.3초) 전부터 뇌의 운동피질에서 활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뇌파검사(EEG)에서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비슷한 실험의 결과들은 인간이 행동의 의식적 주인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어긋나는 것을 보여준다(해리스, 2013 : 16-17).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경제이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체 없는 정신기관을 토대로 계산하고 추론하는 데카르트의 호모에코노미쿠스를 폐기하고 심신평행론의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학 방법론의 형이상학적 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브자그로(J.Buzaglo)도 「에티카」 이후 경제이론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선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인간의 뇌 속에 거주하면서 신체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난쟁이 호문클로스(homunculus, 極微人)을 추방해야 한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호문클로스 대신에 다양한 개인의 사고들, 예를 들어

지각, 숙고, 느낌, 의지 등이 상호 연결된 인과관계의 망, 즉 장(field, 場)을 도입해야 한다”(2006 : 383)고 강조한다. 아직 인간의 정신과 신체, 의식의 무한한 진화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데카르트 관점의 경제학을 벗어나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에 이은 신체, 감정, 의식의 공간에서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심리학자 카너만(D.Kahneman)은 인간의 의사결정은 불완전한 합리성으로 인해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즉 제1체계(감정, 충동, 습관, 본능의 직관)과 제2체계(계산, 명시, 분석의 이성)로 움직인다는 이중체계(dual system)를 채택하고 제1체계를 행동경제학의 기초로 삼았다(2003). 제1체계와 제2체계가 행동경제학과 신고전학파를 구분 짓는 특징이다. 신고전학파는 인간이 완전하게 계산 합리적이라고 상정하는데 반해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습관, 충동, 본능, 감정 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본다. 베블런의 진화경제학 패러다임을 일정하게 공유하는 행동경제학은 비합리적 행위결정에서 신고전학파의 합리성과 결정적 차이를 갖지만 여전히 개인을 단위로 삼고 선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효용이론이나 공리주의, 즉 개체성, 시장기구, 효용과 가치의 선택, 효율과 생산성 등의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고전학파와 행동경제학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쾌락과 고통으로 환원하고 있어서 도구적 이성을 넘어서는 보다 상위의 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홍 훈, 2013 : 292-311). 그렇다면 인간에게 중요한 자아실현, 자유, 역량, 인간발달, 윤리 등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개체주의와 도구적 이성을 넘어 가치와 목표의 성찰, 자아발달과 역량의 확대, 조화롭게 협력하는 공동체 사회의 구축,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길은 없을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역량, 협력, 진정한 자유와 이성의 역할은 새로운 경제학의 방법론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 4.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역량과 기쁨, 사회 공동체

### 4.1 존재 유지를 위한 실존적 본성, 코나투스의 욕망, 이성과 의미있는 삶

인간본성의 욕망을 긍정하는 스피노자에게서 코나투스(conatus)의 개념은 인간의 역량, 감정, 이성과 자유에 대한 지극한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코나투스의 원리는 인간을 본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다른 양태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인간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협소

한 추상적 모델에 기초를 두는 것보다도 크게 대비된다. 여기서 호모에코노미쿠스를 넘어 새로운 인간의 모습과 자기성찰의 지향점을 스피노자에게서 찾는 단서도 얻을 수 있다.

코나투스(Conatus)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개념으로서 모든 사물은 자기 존재 유지의 본성을 실존적 조건으로 삼는다.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기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E, 제3부 정리 6). 모든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노력, 즉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성이며 실존하는 모든 사물의 ‘현실적 본질’(E, 제3부 정리 7)이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힘을 현실적 본질로 삼는다. 돌멩이가 바람의 풍화작용으로 먼지가 되어 날아가기 전까지는 자신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도 코나투스를 자신의 본성으로 갖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과 코나투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유지를 위한 노력이 “정신에 관계될 때는 의지(will)이며,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될 때는 충동(appetite)이다 …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을 동반한 인간의 충동은 욕망(desire)이라고 부른다’(E, 제3부 정리 9의 주석). 인간의 욕망은 정신과 신체가 함께 관계되어 작용하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며 능력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욕망이 자기 존재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파멸로 빠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은 자기존재를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고 더 나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conatus).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사물과 접촉하며 관계를 맺는다.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하면서 활동능력 또는 역량을 키운다. 양태의 코나투스는 자신의 변용능력과 같다. “인간의 신체는 각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본성이 매우 다른 많은 개체로 합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사물로부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는다. 인간의 신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사물들을 필요로 하며, 그것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E, 제3부 요청). 인간의 신체는 본성이 다른 무수한 개체들로 이뤄지고 합성된 ‘복합적 개체들(complex individuals)’이다. 심신평행론에 따라 정신의 능력은 신체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신체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을수록, 더 많은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 받을수록, 신체의 자극이 많을수록 그 정신은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지각하는데 있어 다른 것보다 더 유능하다(E, 제2부 정리 13 주석). 신체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신체의 변용능력은 커지고 신체의 변화만을 지각 할 수밖에 없는 정신의 능력도 커진다. 신체의 변용능력이 정신의 변용 능력을 결정한다. 인간은 다양한 양태들과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합하여 적합한 신체가 되고 공통성을 형성하여 역량(potentia)의 증대를 추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신체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신체를 만나면 능력이 증대된다. 기쁨을 느낀다. 자신에게 불리한 신체를 만나면 능력은 감소된다. 당연히 슬픔을 느낀다. 스피노자는 능력의 증감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의 변용 또는 변용에 대한 관념, 즉 기쁨과 슬픔을 감정(affect, affectus)이라고 부른다. 스피노자의 감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감정과는 깊이와 폭이 다르다. “감정이란 신체의 활동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되고,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고 나는 이해한다”(E, 제3부 정의 3). 감정은 신체의 능력 또는 행위 역량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변이하는 잠재적인 미정형의 개념을 말한다. 스피노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욕망의 세 가지 감정에서 파생되는 수 십 가지의 감정, 욕망, 기쁨, 슬픔, 증오, 사랑, 조롱, 희망, 공포 등 48가지의 종류를 심리 메카니즘과 기하학의 원리로 정리한다.

코나투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간이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향해 자기보존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홍영미, 2006 : 37). 코나투스는 자기를 실현하려는 본성적인 욕구이자 생명력이며 동시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이성적이고 영원한 자아를 추구는 인간 욕망의 표현이다. “진실로 이성은 인간을 더 큰 완전성<sup>3)</sup>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요구한다”(E, 제4부 정리 18 주석). 인간을 포함한 모든 양태는 신적 능력이 변용된 존재이다. 인간의 실재성(reality) 역시 신적 능력이 부여된 완전성의 존재이다. 이성의 안내를 통해 보다 더 큰 완전성(신적 능력)을 향해 새로운 욕망과 역량을 창조하여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말하고 싶은 윤리철학이기도 하다.

## 4.2 수동적 정념의 호모에코노미쿠스를 넘어 이성적 코나투스의 지향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양태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양태들과의 관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신만이 홀로 존재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실체다. 인간은 “외부원인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휘둘리며, 맞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앞일과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동요되는 것은 명확하다”(E, 제3부 정리 59 주석). 더구나 인간은 욕망의 주체이기 때문에 외부 양태와의 관계 속에서 촉발되는 감정에 수동적으로 휘둘리는 정념(passion, 수동적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외부의

3) 인간을 비롯한 모든 양태는 완전성을 지닌다. 실재성은 곧 완전성이다. 기쁨은 불완전성에서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감정이 아니다. 모든 양태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서 더 큰 완전성 또는 더 작은 완전성으로 오르내리는 상태, 그것이 감정이라는 관념이 표현하는 신체적 변이이다.

수동적 정념에 의존하게 되면 부적합한 인식은 피할 수 없게 된다.<sup>4)</sup> 스피노자는 감정의 결과를 필연적 원인관계로 이해하여 적합한 인식을 획득하고 인간이 감정의 내적 작용인으로 작용하는 능동성을 추구한다.

인간의 신체는 본성이 다른 수많은 개체로 합성된 복합적 개체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다”(E, 제3부 정리 17 주석). 우리 신체는 본성상 부적합한 인식에 의해 자극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외적 대상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단지 부분적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달콤한 사탕을 과도하게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기쁘지만 전체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성적 욕망이 특정한 대상이나 부분에만 머물 경우 일종의 도착증이 되어 버린다(손기태, 2016 : 198).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몇몇 부분에 관계되는 기쁨 또는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은 인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E, 제4부 정리 60). 기쁨의 감정이 신체의 부분적 자극에 머물러 있고 신체 전체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 정념에 의한 쾌락에 불과하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측정하여 개인의 선호와 행위가치를 판단한다. 사회 전체의 후생도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인 쾌락(+)과 고통(-)을 합산하여 가늠한다. 센(A.sen)은 공리주의를 효용정보만을 함수로 삼고 내재적 가치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후생주의, 쾌락과 고통을 합산하는 합계 원리(sum-ranking), 그리고 최종 합산의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라고 비판한다(1999 : 63). 스피노자의 감정론에서 쾌락과 고통은 부분적 자극에 머무르는 정념에 불과하다. 소비재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광고, 개인의 탐닉은 외부의 자극을 더욱 촉발하여 인간을 수동적 정념의 노예상태로 몰아넣는다. 쾌락과 고통의 합산과 결과를 후생의 기준으로 삼는 후생주의와 결과주의는 사회 전체를 정념의 수동성에 머물도록 한다. 코나투스(Conatus)는 인간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작용하는 생명력이며 실존적 역량의 표현이다. 부분적 쾌락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유익성을 해치고 활동역량을 감소시키는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코나투스가 갖는 자기보존, 유익성, 생명의 힘을 감소시키는 슬픔의 계열로 이끌게 된다. 쾌락과 고통의

4) 예를 들어 본다. 지도교수가 평소와는 달리 오늘 점심때까지 보고서를 마치라고 당부하자 뜻밖의 질책을 들은 대학원생은 슬픔의 계열인 미움, 분노, 증오가 촉발된다. 지시에 따라 억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한다. 우연히도 지도교수와 의사가 통화하는 대화를 엿듣게 된다. 1시에 자녀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대학원생은 그제야 지도교수가 자신을 재촉했던 원인을 이해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간에 맞춰 보고서를 마칠 수 있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 의해 촉발된 외부의 감정을 필연의 인과관계로 이해하여 능동적 감정으로 바꾸고 적합한 인식에 의해 자기감정의 주인이 되었다. 외부의 정념에 의한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적합한 원인이 되어 지도교수와 공통감각을 획득하고 기쁨을 얻게 된다. 아울러 자기가 제 시간에 보고서를 마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코나투스 또는 활동역량의 증대를 통해 기쁨도 얻을 수 있었다. 수동적 정념 → 필연과 인과관계 → 능동성 → 공통성의 획득 → 기쁨 → 새로운 역량에 의한 욕망 창조와 능력향상이다.



부분적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 감정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호모에코노미쿠스는 스피노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신체의 정념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을 지니고 부적합한 인식에 의해 작용되는 정념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코나투스(欲)는 동물과 같은 물리적인 자기보존의 일차원성을 넘어 영원을 향한 이성적 자아와 닿는다. 마트롱(A. Matheron)은 스피노자가 이성적 자아의 코나투스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본성을 3단계로 나눠서 분류한다. 생물학적 이기주의(E, 4부 정리 19-22), 이성적 효용주의(E, 4부 정리 23-24), 지성주의(E, 정리 25-28)이다. 스피노자가 규정하는 생물학적 이기주의와 이성적 효용주의는 기쁨을 추구하거나 슬픔을 멀리하고 외부대상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유·불쾌한 자극에 반응하여 행동한다. 일차적으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코나투스이다.<sup>5)</sup> 그렇지만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우리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탐색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전개될 때만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다. 이성적 효용주의 단계에서는 삶 전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욕구의 최대만족을 안겨줄 계산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인간본성의 이상적인 모델은 호모에코노미쿠스가 될 것이다(2012 : 347-359).

홉스(T.Hobbes)가 상정하는 인간유형도 호모에코노미쿠스와 비슷하다.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endeavour, conatus) 욕망의 존재로서 개체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권력의지를 갖는다. 쾌락과 고통의 합리적 계산도 코나투스의 보존과 자기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성(Reason)은 계산적 이기주의를 위한 도구 또는 이성효용주의가 작동한다. 이성(Reason)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스피노자의 지성주의는 “우리 자아를 전적으로 규정할 어떤 영양 장치에 접붙이된 일종의 계산기”, 즉 호모에코노미쿠스를 벗어나 “이성적 삶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마트롱, 2012 : 362).

자기보존과 이익의 코나투스(欲, 호모에코노미쿠스)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코나투스(스피노자의 이성적 지성주의)는 노예와 자유인의 삶을 사는 기준이 된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또는 외부 정념에 의해 흔들리고 부적합한 인식에 의거하여 수동적이거나 타인의 소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 필자) 자신의 소망을 따르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들을 행하며, 따라서 매우 위대하게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전자를 노예라 부르고, 후자를 자유인이라고 일컫는다(E, 제4부 정리 66 주석).

이성적 삶은 우리를 수동과 노예상태로 내모는 정념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

5) 최근에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표준이론이 제시하는 합리성이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등동물에게 합당하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가령 호수에서 33마리의 오리에게 두 군데에서 먹이를 주는 속도를 2배로 차이를 두면, 두 군데의 오리가 순식간에 22마리와 11마리로 나뉘는 균형이 형성된다(홍 훈, 2016 : 80). 행동경제학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런 이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단계가 생물학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윤리, 규범, 사회성 때문에 호수의 오리 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생물학적 이기주의를 보인다.

악하여 적합한 관념을 획득하고 스스로 능동적 작용인이 되는 이성적 코나투스를 말한다. 자유는 적합한 관념과 공통성을 획득하는 능동적 변용에 달려있다. “적합한 관념에 의한 인식은 원인에 의한 원인, 즉 신적 인식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보편적 인식일 수 있다”(이수영, 2017 : 272). 정념도 인간이 인식하는 한에 있어서 신을 원인으로 삼아 변용된 관념이기 때문에 적합한 관념의 인식은 신적 인식과 닿는다. 이성적 코나투스는 인격신에 대한 만남이 아닌, 실체(신)의 속성을 통해 무한하게 변용된 관념, 즉 자연=신과의 마주침이다. 스피노자에게서 최고의 선은 신에 대한 인식이며 그것은 신의 관념을 획득하여 자신이 능동적 작용인이 되는데 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적합한 인식과 공통성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타인에게도 유익한 일로 작용한다. 서로 협력하여 사회를 이루어 의미있는 삶과 전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이성적 코나투스의 삶이다. 신고전과 경제학이 전제하는 자기이익과 합리적 계산, 개인주의는 스피노자의 이성적 코나투스, 더 큰 완전성을 향한 인간적 삶, 사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시야를 얻어야 한다.

### 4.3 센의 역량접근, 스피노자의 역량과 자유, 기쁨과 행복, 공동체 사회

#### 4.3.1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스피노자의 신체와 정신의 능동적 변용능력과 자유

신고전학파의 공리주의와 호모에코노미쿠스를 극복하기 위한 비주류경제학의 시도에서 인간이 능동적 역량을 갖고 자유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센(A.Sen)과 누스바움(M.C.Nussbaum)은 인간 역량과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은 인간 평등과 불평등을 소득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공리주의(경제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기능수행, 선택의 자유, 기회의 실현, 실질적 자유라는 역량의 동기(사회적 맥락)에 중점을 둔다. 거칠게는 불평등의 개념도 소득격차가 아닌 역량의 격차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기초재화를 갖고 있어도 더 적은 기초재화를 가진 비장애인보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센은 사람들이 좋은 생활(well-being)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being)에 있고 싶고 어떤 행동(doing)을 하고 싶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역량은 한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위해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 기능수행(functioning)의 다양한 조합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된다(Sen, 1999 : 75). 영양의 측면에서 아사 직전의 공핍자와 단식하는 사람은 똑같이 기능수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단식하는 사람은 영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항상 갖고 있다. 다양한 기능수행의 집합

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소망하는 생활내용을 위해 선택과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자유가 역량이다.<sup>6)</sup> 기능수행과 역량은 서로 구분되면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능수행은 성취이며 역량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역량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이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기회이다”(Sen, 1985: 48). 역량은 개인의 삶이 소망하는 데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 역시 소망스러운 목표를 실질적 자유를 갖고 추구할 수 있는 능동적 행위주체(agent)로 나서게 된다.

센과 누스바움은 모든 시민이 평등한 역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여 사회정의로 삼는 역량접근을 정치적 목표로 삼는다. 센은 발전경제학의 차원에서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권한획득(entitlement)의 역량에 집중한다.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역량 목록의 작성을 중시한다. 그녀는 열 가지 인간의 기능적 역량목록<sup>7)</sup>을 제시하여 모든 사회에 적용된 공통적이고 보편적 수준의 역량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접근은 공리주의의 효용과 선호체계를 벗어나서 개인의 행위와 역량, 인간발달, 개인의 능동적 주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업적이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더욱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역량론은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론에 대한 철학적인 밑그림을 일찍부터 제시한 셈이다. “신체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을수록, 혹은 더 많은 방식으로 작용받을 수 있을수록 그 정신은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지각하는데 있어 다른 것보다 더 유능하다”(E, 제2부 정리 13 주석).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에 따라 신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수록 신체의 변용능력은 커진다. 역시 신체의 변화만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 정신의 능력도 커진다. 신체의 변용능력이 정신의 인식능력을 결정한다. 역량접근법은 자전거를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수련도 고려한다. 역량은 잠재력도 포함

6) 또 다른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고 할 때 공리주의와 역량접근법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 공리주의는 두 사람 모두가 소비재를 구입하여 재화의 효용이 실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사실 A는 자전거를 통근용으로 샀지만, B는 자가용을 놔두고 통근과 운동도 겸하고 여유마저 즐기려는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였다. A는 자전거를 통해 통근이라는 기능수행을 달성한데 비해서 B는 통근과 운동·여유라는 여러 수행 기능을 얻게 되었다. 또 바쁘면 자가용도 운행할 수 있는 기능수행도 갖고 있다. 센의 능력은 기능수행의 집합(combination of functionings)이며 생활의 내용을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를 나타낸다. 바로 B는 자가용, 통근, 운동, 여유라는 재화의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이 많으며 언제든지 생활의 내용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기 때문에 A보다 역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기능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센의 빈곤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소득수준과 이에 비례하는 재화소득의 가득성을 빈곤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빈곤국가에게 무조건 물자를 원조하지 말고 그들의 역량(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교육, 건강, 영양상태, 선택을 위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원용찬, 2008 : 40-41).

7) 누스바움의 10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생명, 신체건강, 신체보전, 감각, 상상, 사고, 감정,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관계(affiliation), 인간 이외의 종, 놀이, 환경통제이다(누스바움, 2015 : 49-50).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원을 비롯한 기본적 가치재화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능 숙달의 기회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역량은 자전거 고유의 기능을 배우고 숙달을 통한 기능 터득에서 마무리된다(이양수, 2018 : 38). 자전거 타는 기능숙달의 마무리가 신체에 작용하는 변용능력은 정신을 더욱 유능하게 만든다. “인간의 정신은 매우 많은 것을 지각하는데 적합하며, 인간의 신체가 한층 더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적합성은 더욱 커진다”(E, 제2부 정리 14). 정신은 산악지대까지 가고 싶은 욕망을 새롭게 창조하여 높은 산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신체가 변용하여 신체와 정신은 더 높은 적합성을 키운다.

센과 누스바움은 인간의 본질인 욕망과 코나투스를 간과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이성적 삶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나투스의 욕망을 긍정한다. 욕망은 덕(virtue)의 기초이다. 자유인의 삶은 욕망을 덕성으로 삼아 이성과 더불어 적합한 인식, 공통성, 능동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창조한다.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은 수영이라는 능력을 키운다. 수영선수는 운동장 보다는 수영장에서 가장 자유롭다. 수영에 서툰 사람은 물이라는 양태와 만나게 되면 자신을 변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수영에 능숙한 사람은 물과 자신, 즉 양태들 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에서 공통성을 획득하여 능동적 변용능력을 얻는다. 자유는 역량과 능동적 변용능력에 달려있다.

#### 4.3.2 스피노자 역량의 반목적성과 다양성, 자유로운 개인과 기쁨의 사회공동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역량접근이 갖는 한계도 스피노자의 관점을 빌려 지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역량 접근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a good life), 즉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이성=신을 되살리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최상의 좋음, 탁월성, 행복(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를 준거의 틀로 삼고 있다(Crespo, 2008 : 14).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모든 사물의 형상은 최종적인 목적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완성태는 최종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역시 인간에게서 좋은 삶을 위한 이성=영혼의 활동과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형상인,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 중에서 최종 목적인에 해당한다. 신은 인간을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현할 형상의 목적인으로 간주한다.

스피노자의 반목적성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한다. 신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스피노자에게서 실체(신)은 언제나 내재적 작용인이다. 목적은 인간이 자기 유용성에 맞춰 스스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은 곧 자연이며 모든 양태 속에서 스스로 변용되어 양태로서 자기를 표현한다. 사물이든 관념이든 양태를 통한 신적 인식은 적합한 인식과 공통성을 획득하는 능동성에서 나온다. 이성적 코나투스를 향한 욕망의 본성을 수많은 양태들과 일치시키고 적합화될 때 그것이 선이

다.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선이다”(E, 4부 정리 31).

선은 코나투스(欲)의 덕성으로서 욕망이라는 인간본성과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이다. 선은 이성적 보편성이나 목적론의 부여도 아니며 개개인이 각자의 욕망과 적합화될 때 다양성을 갖는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E, 제3부 정리 9 주석).

정치영역이 선의 개념과 범주를 형성하고 여기에 맞게 기능수행의 목록을 확정된 방식으로 정하여 공적 목적으로 삼을 때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기능수행 자체를 시민들이 하나의 확정적 방식으로 강요하는 공적 정책의 목표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가 갖는 가치를 포기하기 때문이다”(허성범, 2013 : 140). 기능수행의 선함(the goodness)을 평가할 때 선의 개념이 다원성을 위배하지 않고 인간의 실질적 발달을 사전에 미리 부과하지 않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Zuolo, 2004 :7).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면서 도출되는 스피노자의 선은 인간 개개인에게 개성과 다양성은 물론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누스바움은 10대 핵심역량에서 좋은 삶을 이끄는 실천이성의 의미에 대해 ‘선(the good)의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인생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스바움의 실천이성=선의 개념 형성은 보다 더 욕망과 통합되고 신체와 정신이 적합성을 이루어 “이성이 인도하는 삶”(E, 제4부 정리 35)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역량접근의 자유와 스피노자의 역량에서 드러나는 자유는 다르다. 스피노자의 역량은 수 많은 양태와 적합성을 획득하여 신적 인식과 영원성의 정신적 기쁨을 획득하는데 까지 나간다. “대단히 많은 것에 적합한(유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한 정신을 소유한다”(E, 제5부, 정리 39). 자연은 곧 신이기 때문에 자연을 많이 지각하고 경험할수록 신과 닿게 된다. 수많은 양태와 마주치고 경험하며 공통개념을 형성하고 사물의 원인에 내재한 신적 인식을 통해 신에 대한 지적 사랑(스피노자의 제3종 인식으로서 직관)과 영원한 정신의 기쁨을 얻는다.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과 기쁨이다. 기쁨은 신체와 정신이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정동의 변이, 즉 감정이다. 스피노자에게서 역량과 자유는 신체의 변용능력을 키우며 인간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영원한 정신과 만남으로써 “고귀한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문 것이지만”(E, 제5부 정리 42 주석) 그런 기쁨(laetitia)을 얻는 것에 있다.

스피노자는 외부의 수동적 정념에서 벗어나 덕과 이성(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제안한다. “자유로운 인간들은 홀로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협력하여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더욱 자유롭다”(E, 제4부 정리 73).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역량과 자유의 문제를 자유로운 개인과 기쁨의 사회 공동체까지 확장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때 “풍요로운 사회에서 인간과 사회적 발전이 실패하고 오히려 풍요로움이 그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Zuolo, 2004 :7).

##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견고한 핵으로 자리 잡아왔던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목적론을, 데카르트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형이상학으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의 지식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지식이란 신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체계를 말한다(박우희, 2007 : 3). 어떻게 지식이 형성되어 왔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부동의 실체이며 궁극적 원인자로서 신에 대한 관념과 마주친다. 데카르트의 실체(신)는 신과 이성 중심, 기계와 역학, 최종적 균형과 안정이라는 목적론에 형이상학적 토대가 되어 왔다. 스피노자는 실체(신)=자연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데카르트와 입장을 달리하고 신을 궁극적 목적인이 아니라 자기원인의 내재적 작용인으로 파악한다. 신은 속성을 통해 무한한 양태로 변용되고, 특히 인간에게는 신체와 정신의 변용에서까지 매 순간마다 자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당연히 스피노자 철학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의 지식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스피노자에 근거하는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이미 다윈과 진화경제학, 비선형의 복잡계 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협소한 인간모델로서 호모에코노미쿠스도 데카르트 합리주의와 경험철학의 공리주의가 결합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심신평행론,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신체의 욕망, 계산하고 측정하는 도구적 이성이 아닌 참된 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은 신경경제와 행동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경제학의 지식체계에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역량과 기쁨, 공동체 사회는 비주류경제학의 역량접근과 동일 지점에 서있으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제5부와 「신학정치론」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적합화하고 공통관념을 형성하여 더 큰 완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사회공동체와 민주정치까지도 제시한다. 여기서는 경제학과 관련한 내용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 글은 처음으로 데카르트의 오류와 스피노자의 근원적 지식체계를 경제학과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비주류경제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진화와 복잡계 경제학, 신경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스피노자 형이상학의

지식산출 체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데카르트의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확연히 대비된다. 결국 경제학의 패러다임 다툼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서 기원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현대 경제와 시장 메카니즘은 확실히 선형성, 최종적 안정과 균형을 벗어나 ‘비정상의 정상화’처럼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폭되고 있다.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인간 모델도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디지털의 무형재 산업은 협력과 공유를 가치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제조업에 기초했던 경쟁적 시장 영역은 디지털의 호혜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고 보장해야만 자신의 이익추구가 가능한 이타자리(利他自利)의 인간유형으로 대체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최배근, 2018 : 208-211).

경제학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세계에 대응하여 새로운 분석, 이론체계, 예측의 정확성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 철학과 새로운 경제학의 견고한 핵에 대한 가능성은 대항적 비주류경제학이 미래 지향적 패러다임을 공고히 구축하거나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새로운 반증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누스바움, 마사. (2015). 역량의 창조, 서울 : 돌베개.
- 다마지오, 안토니오. (2016). 스피노자의 뇌 : 기쁨, 슬픔, 느낌의 뇌과학. 서울 : 사이언스 북스.
- 마트롱, 알렉상드르. (2012).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서울 : 그린비.
- 박삼열. (2012). 스피노자의 『윤리학』 연구. 서울 : 선학사.
- 박우희. (2007). 경제학의 기본원리 : 과학·철학·예술과 경제 원리의 발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센, 아미타아. (1999).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 한올아카데미.
- 손기태. (2016). 고요한 폭풍, 스피노자 : 자유를 향한 철학적 여정. 서울 : 글항아리.
- 들뢰즈, 질. (2015).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옮김, 서울: 민음사.
- 세들라체크, 토마스. (2012). 선악의 경제학. 노은아·김찬별 옮김, 서울 : 북하이브
- 스피노자. (2016). 에티카, 황태연 옮김.(2016). 전주 : 비홍출판사
- 아렌트, 한나. (2016).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우 옮김, 서울 : 한길사.
- 원용찬. (2007). 유한계급론 : 문화·소비·진화의 경제학. 서울: 살림.
- 원용찬. (2008). 해제 : 아마티아 센을 말한다. 아마티아 센.(2008). 센코노믹스. 원용찬 옮김, 서울 : 갈라파고스.
- 이수영. (2017). 에티카 : 자유와 긍정의 철학. 서울 : 오월의 봄.
- 이양수. (2018). 정의와 역량 : 역량 중심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병천 편. (2018). 상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 서울 : 해남. 10-62.
- 최배근. (2018).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서울 : 동아엠앤비.
- 한성안. (2010). 진화경제학의 유토피아로서 “에브토피아”. 사회경제평론, 34. 1-38.
- 해리스, 샘. (2013). 자유의지는 없다. 서울 : 시공사.
- 허성범. (2013). 역량과 인권 : 센과 누스바움. 시민인문학, 25. 134-174.
- 홍영미. (2006). 스피노나의 코나투스 이론. 철학연구, 73. 21-42.
- 홍 훈. (2007).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변화와 한국학계의 수용(1960-2006). 사회경제평론, 29(2), 89-130.
- 홍 훈. (2013).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 서울 : 신문사.



- 홍 훈. (2016). 행동경제학 강의. 서울 : 서해문집.
- Atlan, Henri. (1998). Immanent Causality : A Spinoza Viewpoint on Evolution and Theory of Action. in G.Van de Vijer et al(eds.).
- Atlan, Henri. (1998). Evolutionary Causality : Bi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 on selection and self-organization. Netherlands : Springer Science etc. 215-231.
- Buzaglo, Jorge. (2006). Capabilities : From Spinoza to Sen and Beyond. in Edward Fullbrook(eds.).
- Buzaglo, Jorge. (2006). Real World Economics : A Post-Autistic Economics Reader. London etc : Anthem Press. 377-390.
- Crespo, R. (2008). On Sen and Aristotle. Working Paper Series IAE, IAE Business School, Austral University. 1-55.
- Faria, J.R. (2011). Emotions, Happiness and Growth : Spinoza, James, and Ramsey. Economic Issue, 16(2). 81-92.
- Glimcher, Paul W. (2003). Decisions, Uncertainty, and the Brain : The Science of Neuro economics. N.Y. : MIT Press.
- Hirata, J. (2011). Happiness, Ethics and Economics. New York : Routledge.
- Kahneman, D. (2003). Thinking, fast and low. London L Allen Lane, Penguins Books.
- Keyzer, M.A. (2000). Spinoza and Micro-Economics. Yirmiyahu Yovel(eds.).
- Keyzer, M.A. (2000). Desire and Affect : Spinoza as psychologist. New York : Little Room Books, 265-281.
- Mini, Piero V. (1974). Philosophy and Economics. Gainesville : Th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 Redman, Deborah A. (1993). Economics and the Philosophy Scien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1985). The Standard of Living.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at Clare Hall, Cambridge University.  
[https://tannerlectures.utah.edu/\\_documents/a-to-z/s/sen86.pdf](https://tannerlectures.utah.edu/_documents/a-to-z/s/sen86.pdf).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 Anchor Books.
- Veblen, Thorstein. (1898). Why is Economics an Evolutionary Science. in Thorstein

Veblen. (2006). *The Place of Science in Modern Civilization*. New Brunswick etc : Transaction Publishers.

Veblen. (1932).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York : Scribner's.

Kaucky, Liba. (2016). Was Spinoza a forerunner to Darwin?. in Draft paper written 2016 prior to presenting it at the Philosophy Summer School: 'The Challenge of Natural Teleology: Final Causes from Aristotle to Darwin' on the 28th June 2016 at the University of Groningen. 1-12.

<http://www.researcherid.com/rid/P-2484-2016>.

Whitehead, A. (2007). *The Concept of Nature*. New York : Cosimo, Inc.,.

Zuolo, F. (2004). Sen's capability theory : Spinoza Beyond Aristotle. 1-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8433701\\_SEN%27S\\_CAPABILITY\\_THEORY\\_SPINOZA\\_BEYOND\\_ARISTOTLE](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8433701_SEN%27S_CAPABILITY_THEORY_SPINOZA_BEYOND_ARISTOTLE),